

디지털 문명의 물살 거부하는 아날로그형 책들

여백의 운치, 종이의 질감 살린 표지장정... 탈문명적 메시지 던지는 시·소설도 눈길

요즘 서점가에는 디지털 문명의 물살을 거스르는 아날로그형 책들이 넘치고 있다. 표지 장정부터 책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감응의 미학'이 출판의 주류를 이뤄가고 있다. 문명의 속도에 지치고 심화되는 경제파국에 심신을 저당잡힌 현대인들에게 기계적 물질성을 벗어나 사람냄새, 손맛의 감촉 등이 물씬 나는 책들이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여백의 운치 살린 표지들

이러한 경향은 책의 표지와 장정에서 두드러진다. 현란한 실험적 색채가 범람했던 표지에서는 흰색 바탕에 간결한 서체를 가미해 여백의 운치를 살리고 있다. 베스트셀러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양귀자의 《모순》(살림)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흰색을 배경으로 왼쪽 상단에 제목을 작은 글자로 배치하고 가운데는 작가이름, 아래쪽에는 출판사 이름을 명기했다. 여백을 강조하면서 글자 배열만으로 소박한 아름다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지에 사용되는 서체도 기존의 컴퓨터 타이포그래피에서 탈피해 '봄·여름·가을·겨울체'·'필기체' 등을 사용해 손으로 쓴 듯한 느낌을 살리고 있다. 또한 옛 활자본이나 금속문에서 글자를 모아 제목을 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술에서 간행되고 있는 <나랏말씀> 시리즈와 열화당의 《서원》 등이 그에, 고전의 단아한 운치를 느끼게 하는 표지들이다.

종이의 질감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표지도 눈길을 끈다. 강은교의 에세이집 《달팽이가 달릴 때》(샘터), 병상의 환자들을 위한 위안의 시들을 모은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여백) 등은 라미네이팅을 하지 않아 종이의 섬세한 결을 살렸다. 특히 《너의 아픔이...》는 산과 강 그리고 구름의 형상을 요철 처리해 종이 자체의 물질적 특성을 강조했다.

한국적 정서와 미적 감수성을 되살린 도화를 표지에 활용해 전통의식을 강조한 책들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가고 있다. 우리 교육에서 폐낸 《다시 쓰는 문학 에세이》는 눈 내리는 집을 선 굵게 형상화한 이철수의 판화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마음이 조용

요즘 서점가를 점령하고 있는

아날로그형 책들은 외형상 획일적

규범성에서 탈피해 '형식의 민주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또한

회고주의적·전원 복귀적 메시지들이

황폐해져가는 영혼을 적셔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자칫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천착해가는 열정을

식게 하고 잠깐 동안의 값싼 위로에

머물게 할 가능성도 있다.

히 그 눈을 다 맞는/눈오는 마을을 보았느냐"는 김용택의 시 《눈오는 마을》을 곁들여 담백한 여운을 담아냈다. 학교재의 《금강산》도 금강산을 전통 산수화로 그려 고졸한 미를 전한다.

이들 표지 장정은 첨단화된 기계문명 시대를 살짝 비켜선 지점에서 있다. 인터넷·CD롬·온라인북 등 전자매체의 파상공세 속에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책 자체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데 그 변모의 의미가 읽힌다. 책이 단순히 텍스트를 담아내는 것에서 벗어나 그것 자체로 향유할 수 있는 미적 대상으로 격상되고 있는 것이다.

탈문명적 메시지 띄우는 시·소설도

책의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탈문명적·수공업적 삶의 방식을 일깨우는 글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번잡한 도회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의 유유자적과 무소유의 청빈함을 배운 작가들의 글이 세편 나와 있다.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와 《청산에 살리라》(현대문학) 그리고 《작고 가벼워질 때까지》(실천문학사)가 그것.

법정스님의 법어를 류시화 시인이 엮은 《산에는 꽃이 피네》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기, 나누며 살기,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살기, 삶의 주체인 자신을 제대로 알기 등의 메시지를 절제된 문장으로 설파한다. 물질적 욕망과 아집에 갇혀버린 이들에게 참된 삶은 자신을 비우고 불필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청빈과 무소유의 삶이라는 것을 낮은



사람냄새와 손맛의 감촉을 살린 아날로그형 책들이 새롭게 독자를 찾아가고 있다.

목소리로 들려준다.

김정빈의 《청산에 살리라》는 안성의 작은 전원마을에서 띄운 편지글이다. "나는 청산이라는 미인 곁에서 사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쁘다. 가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더러 그녀의 살결을 어루만질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며 전원에서 사는 낙을 적어보낸다. 한국판 '귀거래사'인 셈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정이 없으면 전원생활도 결국은 무위로 돌아간다는 통찰도 담겨 있다.

항토벽에 슬레이트를 얹은 모악산의 오두막에서 기거하고 있는 시인 박남준이 세속으로 띄워보낸 편지글인 《작고 가벼워질 때까지》는 신세벽에 마시는 정한수 같은 책이다. 이따금 떨어내려리는 감 소리에도 가슴 아파하고 감잎 지는 외딴 집에 홀로 쓸쓸한 미소를 짓는 시인의 감수성이 오욕의 삶을 사는 도시인들을 아프게 질타한다.

이러한 에세이에서 진솔한 삶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소설 속에서는 생활의 완력에 밀려 옆으로 밀쳐두었던 아련한 추억의 세월을 만날 수 있다. 시인 안도현의 《사진첩》(거리문학)은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버렸지만 '존재의 뿌리'를 담고 있는 옛 사진첩을 펼쳐보인다. 거기에는 조명이 평, 하고 터지면 유행냄새 자욱하던 사진관, 도라꾸가 자욱하게 먼지를 날리며 달리던 신자로, 16절 갱지를 철근으로 묶은 연습장과 빨간 색연필이 나온다.

잊혀진 세월 속에는 피블이에 대한 망각도 끼어 있다. 손영목의 《친척》(강)은 다시

'친척은 나에게 누구인가'는 화두를 던진다. 작가가 그리운 친척들을 찾아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기까지 겪은 감동의 순간을 스냅 사진 찍듯이 기록했다. 인간관계마저도 손익을 따지는 각박한 세상에서도 최후의 피난처가 되어줄 혈육의 참된 의미를 따져보게 한다.

소설가들이 존재의 근원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면 시인들은 디지털 문명의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지천명의 나이에 이른 시인들의 시 속에서 우리는 더욱 웅숭깊은 통찰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주하게 된다.

창작과비평사에서 나란히 나온 천양희의 《오래된 골목》과 노항림의 《후투티가 오지 않는 섬》, 그리고 심호택의 《미주리의 봄》(문학동네) 속에는 견고한 일상을 견뎌내는 관조의 철학과 순결했던 유년의 기억이 소담스레 꽃피어 있다. 신문의 세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밀한 서정을 흠뻑 맛보게 한다.

이러한 아날로그형 책들은 외형상 획일적 규범성에서 탈피해 '형식의 민주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회고주의적·전원복귀적 메시지는 황폐해져가는 영혼을 적셔줄 한줄기 소낙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이 자칫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천착하는 열정을 식게 하고 잠깐동안의 값싼 위로에 머물게 할 가능성도 있음은 경계할 일이다.

— 박천홍 기자